

‘관광명소 군산’ 관광객 300만명 돌파

천혜의 비경 고군산군도...26% 늘어난 145만명 방문 근대역사박물관·철새조망대 등 볼거리·즐길거리 가득

군산이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연간 관광객 300만명이 찾는 명소로 발돋움하고 있다.

7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 들어 10월 말까지 군산시를 찾은 관광객은 317만명으로 전년 동기 같은 기간 184만명에 비해 72.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천혜의 비경을 간직한 고군산군도가 26% 늘어난 144만7000명의 관광객이 몰리면서 가장 많았고 근대로의 시간 여행을 떠나볼 수 있는 근대역사박물관을 다녀간 여행객이 76만1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철새조망대와 청암산 오토캠핑장, 테디베어 박물관 등 군산의 다른 관광명소를 다녀간 관광객도 85만명으로 집계됐다.

군산시는 이들 관광객이 군산에서 쓴 돈을 1800여억원으로 추정, 지역 경제 활

성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추산했다. 앞서 전북연구원은 지난 2015 전라북도 관광객 실태조사를 통해 군산시를 찾는 관광객의 1인당 평균 소비금액을 5만7042원으로 추산한 바 있다.

군산시는 고군산 연결도로의 부분 개통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시간여행 축제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을 활용하면서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다.

섬들이 산처럼 온집해 있는 고군산군도는 16개의 유인도와 47개의 무인도, 총 63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결도로가 개통되면서 여행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또 신흥동 일본식가옥, 동국사 뿐 아니라 1899년 개항 이래 외부 문물이 활발하게 유입되면서 일제 수탈의 흔적이 원도심



지난 여름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시간여행 마을 일대에서 펼쳐진 군산야행 행사를 즐기고 있는 관광객들. <군산시 제공>

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점을 내세워 시간여행 축제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군산시 관계자는 “내년 1월 고군산 연결도로가 전면 개통하고 2023년 세계점비

리대회의 배후 관광지로서의 면모를 갖춘다면 500만 관광객 시대도 조만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kwangju.co.kr

완도 ‘장보고대교’ 이달말 개통

5개 큰 섬 육지와 연결 대응 전략 점검 등 나서

완도 신지도와 고금도를 잇는 장보고대교 개통이 이달 말로 임박했다. 기존 3개 교량에 이어 이번 장보고대교가 개통되면 완도군 큰 섬 5개가 육지와 연결된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지도 송곡리~고금도 상정리를 잇는 장보고대교가 이달 말 공식 개통될 예정이다.

익산지방국도관리청이 960억원을 들인 이 교량은 해상구간 1.3km를 포함 총연장 4.3km의 2개 주탑을 가진 사장교로, 2010년 12월 착공했다.

장보고대교가 개통되면 완도읍을 중심으로 5개 읍·면이 ▲약산대교(약산도~고금도) ▲신지도대교(완도읍~신지도) ▲고금대교(강진 마량~고금도)와 함께 4개 교량으로 연결된다.

군은 주민통행, 교통편의, 물류,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장보고 개통과 관련, 최근 정

주 여건, 지역경제, 문화관광 등 4개 분야 25개 세부과정을 담은 장보고대교 개통에 따른 대응방안 보고회를 하기도 했다.

군은 지난 8월 3일부터 9일까지 고금·약산·생림 등 35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전화조사를 통해 장보고대교가 개통되면 생필품 구매를 위해 완도읍권역을 이용하는 비율이 평균 11.2% 증가할 것으로 파악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완도가 지리적으로 통합 재편되고 완도 동부권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나아가 경남권역까지 이어져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완도를 일대 편의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미지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완도가 지리적으로 통합 재편되고 완도 동부권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나아가 경남권역까지 이어져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완도를 일대 편의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미지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완도가 지리적으로 통합 재편되고 완도 동부권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나아가 경남권역까지 이어져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완도를 일대 편의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미지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완도군 관계자는 “장보고대교 개통으로 완도가 지리적으로 통합 재편되고 완도 동부권을 비롯한 전남 동부권, 나아가 경남권역까지 이어져 완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완도를 일대 편의시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이미지 개선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와 서천군은 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행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기로 약속했다. <군산시 제공>

‘협력과 상생’ 군산-서천 행정협의회 개최

관광지 입장료 상호 감면 등

군산·서천 주민들이 양쪽 관광지를 할인 입장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군산시는 7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충남 서천군과 행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관광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력기로 했다.

군산시는 이날 협의회를 통해 ▲유료시

설 상호감면 추진 ▲한국지엠 차량구매 홍보협조 ▲실베장어 안강명 공동조업수역 지정을 위한 공동노력 등 3가지 안건에 대해서 합의했다.

입장료 감면 등은 양측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주는 입장료 및 이용료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군산시 등은 올해 안에 서로 조례를 개정,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천군은 또 앞으로 관광차를 교체할 때 군산에 있는 한국지엠 차량을 우선 구매하는데 협조하기로 했다. 한국지엠 군산 공장의 위기설로 자칫 군산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이뤄진 조치다.

양 시·군은 협력과 상생발전 관계를 상시 유지하면서 상호 이익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 사업을 보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군산=박금석기자 nogusu@

시민이 기증한 수목으로

익산 ‘시민의 숲’ 꾸민다

포토존·벤치 조성

익산시가 시민들의 기증수목을 활용, 전라선 폐선부지에 시민의 숲을 조성한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1억1000만원을 들여 전라선 폐선부지 익산시 구간엔 느티나무 등을 식재, 시민의 숲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시는 특히 시민들이 기증한 목백합 등 4종 171개를 식고 기증자를 소개하는 안내판도 설치할 예정이다.

시민의 숲을 찾는 이용객들을 위한 포토존과 벤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계절별로 변화를 주기 위해 봄에는 노랑·분홍색 등의 꽃을 식고 여름에는 느티나무와 목백합, 대왕참나무 등으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는 한편, 겨울에도 꽃망초나무와 소나무 등으로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꾸기로 했다.

익산시 관계자는 “시민의 숲이 조성되어 시민들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기증수목을 활용, 지속적으로 가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유정영기자 yijy@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완도산 햇김 맛보세요”

2017년산 햇 물김 위판이 시작됐다.

7일 완도군에 따르면 군외면 당인리 물김 위판장에서 지난 31일부터 햇 물김 위판에 들어갔다.

올해 첫 위판에서는 5개 어가가 참여, 225마대(120kg 기준) 27이 위판됐다. 위판가격은 마대당 8만원에서 17만6000원 선에 형성됐다.

이 시기 생산되는 김은 10월 말부터 약 30일간 조기 생산하는 ‘곱감 김(이비디 돌김)’으로 김 업체가 꼬불꼬불한 곱감을 달았다고 하여 ‘곱감 김’으로 불린다.

참김은 12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생산되며 마대당 2016년 기준 15만 6000원 선에 위판됐다.

지난해 완도군 물김 생산량은 4만

3497t. 위판금액은 488억3500만원의 위판 실적을 올렸다.

완도에서 위판되는 물김은 완도 관내 및 해남, 고흥 등 가공공장으로 옮겨져 구이 가공으로 가공된다.

이렇게 가공된 김은 또 다시 전국에 있는 2차 가공공장으로 옮겨 지거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된다.

완도군은 올 들어 누적 수출액을 보면 김이 4억 5000만 달러의 누적 수출액을 기록, 5억달러 고지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깨끗하고 품질 좋은 김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비표 공업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명품 김종자 개발 보급 등 품질 좋은 김 생산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기자·전남주재총괄본부장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권·전원주택지

- 완도 익산면 특압리 바다집 2481㎡ 판권·별장적합 2억4천
- 완도 익산면 특압리 경관최고부지 31503㎡ 염소사육적합 5억7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전 1689㎡ 판권 분유기 1억4500
- 장성 북이면 백양들개이트부근 전 2192㎡ 다용도가능 1억1500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소방도 대지 146㎡ 복층형주택 76㎡ 생활편리 1억6천
- 월산동 소방도대지 대지 93㎡ 주택 94㎡ 가계 2칸과 집 1억2천
- 월산동 우체국부근 골목 대지 294㎡ 정원과 주택 2동 2억2천
- 서동 제일리 7층 105㎡ 임대도 가능 매도 1억1500
- 서동 대지 185㎡ 상가와 5세대 전세 2억7천 월 55 법인이전할 4억
- 화순읍 동면 대지 320㎡ 국유지 50여평도 사용 복층주택 60여평 판권나무 준공 갤러리·커피숍·식당 적합 3억8천

투자·매도·교환

- 완도군 금당면 가회리 땅 2013㎡(609평) 조용한 생활에 적합 하루에 여객선 4회다닐 옥지에서 40분 3300만원
- 안계장 허가부지 장흥읍 15000여㎡ 축사허가도 있음 6억9천
- 담양 월산면 월평리 땅 4846㎡ 과수원·농장적합 1억

상가건물

- 영암군 신흥읍 땅 1312㎡ 건물 925㎡ 은행 2억5천 매도 4억3천
- 시무실 적합 농성역부근 2·3층 993㎡씩 분할매도가능 230만원씩
- 전북 고창 대산면 아파트상가 1·2층 252㎡ 은행 1억 매도 5천만원
- 북구 용봉동 아파트단지 입구 땅 1026㎡ 상가 1538㎡ 49억
- 농성동 대로점 대지 313㎡ 건평 997㎡ 병원·식육 등 적합 24억
- 월산동 신축 3층 상가주택 대지 175㎡ 매도 5억6천
- 유동 모델 대지 422㎡ 건물 984㎡ 감정 12억 교환가능 7억8천
- 주월동 무등시정부근 대지 209㎡ 대지 14세대 328㎡ 3억5천

급매

- 북구 본촌동 공장·창고 적합 1300여평 분할가능 19억5천
- 북구 우산동 모델 대지 408㎡ 건평 971㎡ 27실 6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전원주택토지

- 장성군 동화면 남산리 1073-7
- 대지 128평, 계획관리지역
- 문화마을 전원주택내 위치
- 침단에서 20분거리
- 현, 36세대중 25세대 거주
- 매매 - 9000만원(조정가)
- 문의. 010-3605-5000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적용된 리모델링 시스템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재시공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징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터디자이너 잔 엔디나와의 콜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혀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할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갈라하고 붙이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109779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사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10-6603-0405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